

DYNAMIC KOREA

2009 November www.dhns.co.kr

2009 11

Focus 한·중·일 경제계, 아시아 역할 확대

제1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개최

Art Festival '2009 중국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

오늘의 한국현대미술-한국의 빛깔



Global Leading Company 한국수력원자력(주) 김종신 사장

원전(原電) 르네상스 일으켜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한다

Focus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이 물고 올 파장

'공무원은 공복(公僕)이 아닌 아악집단이었나?'



People Focus (前 GE 코리아 회장) CEO건설링그룹 김석진 회장

꿈(夢)꾸던 소년, 캔버스(Canvas) 위로 오다.

Hot Issue 강남 고급 아파트 계약자 서초구청 공무원 상대로 민원신청

"간접사 사용승인허가 관련 자료제공 하라" vs "정보공개 하지 않겠다"



Local Focus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

"시민들의 의견 적극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구성 위해 노력"

Art Focus "한국미술의 대표작가 초대전, 오늘"

대한민국 최고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

People Focus 제33대 대한건축학회 손장열 회장

제자를 향한 건축을 향한 내리사랑



Hot Issue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

정조대왕의 효심(孝心) 시멘트 아파트에 매몰 '우가'

세계인이 배우는 충효(忠孝)와 풍수(feng shui)...한국에서만 '오전'

Vision University 단국대 '2009년도 아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세계 수준의 조직재생공학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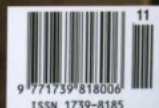
Focus 영성리더십학회, 화제집중

眞正한 Global Leader는 영성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에서 나온다.

Cover Story 여명그룹의 이상모 회장

전 세계를 휩쓸 한국의 신 유통패러다임 '상환계수와 알고리즘'

VOL 80



9 771739 818006
ISSN 1739-8185

Daily(일간) **대한뉴스** 발행

아산시 발전 위해 발로 뛰는 의회

"시민들의 의견 적극 수렴하며 시민을 위한 의회구성 위해 노력"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

아산은 희망의 도시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포진해 있음은 물론이요 곳곳에서 개발이 착착 진행되며 우리나라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수출도 충청남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어 아산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아산둔포지역에 아산테크노벨리가 완공되면 아산은 수출1위 도시 뿐만 아니라 기술1위 도시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의 밑바탕에는 바로 아산시의회가 있다. 갖가지 조례제정과 예산심의로 아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작년 7월부터 하반기 의회 의장을 맡으며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준배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시민의 사랑과 관심은 아산시의회 발전의 원동력"

김준배 의장이 지난 1년 여 동안 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내용은 대략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아산시의회내의 자문위원 구성이다. 상위법의 제약으로 조례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법률고문을 두었으며 시민들의 여론을 직접 듣기 위해 시민단체를 참여시킨 의정자문위원회 또한 구성하였다. 둘째, 농업발전특별위원회구성이다. 김 의장은 "농축산물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위해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농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농민들이 수시로 토론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도하고 농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시키기도 한다. 셋째, 관광특별위원회의 구성이다. 수도권전철이 신창역까지 개통되면서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 좋기도 하지만 아산지역에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이렇게 세 개의 온천이 물려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어 이러한 폐단을 막고 상생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것이 관광특별위원회이다. 관광객분산, 상인들의 의견 반영 등이 이 특별위원회의 몫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민간자본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다. 김 의장은 "막대하게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금이나 시민단체보조금이 시민들이 정확히 요구한 부분에 쓰이는지 또 정산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또 편중되게 어떤 특정인에게만 지원이 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해 의원들이 속속들이 알아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민간자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김 의장이 이루어놓은 일들을 돌아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다.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 인터뷰

천안시에서 주장하는 천안·아산 통합논의로 아산시민들의 심기가 불편한 이때 김준배 의장의 마음 또한 그리 편하지 않다. 통합논의는 일말의 가치도 없다며 운을 떼는 그를 보며 아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Q 의장님의 정치리더십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결정한 일은 제가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동료의원들과 상의해서 의회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의장단 5명이 수시로 의장단 회의를 열어서 중대사항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라고 동료의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의회에 십분 발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강연을 통해 배움의 장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발전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자신의 의견을 소신있게 밀고 나가며 동료의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준배 의장은 작년 7월부터 후반기 의회 의장을 맡으며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충남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타지역 의장님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지방자치 의회가 항상 변화하고 비전이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변화를 꾀해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제 임무를 충실히 해서 아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산시의회가 변화됐다, 아산시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구나하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DH**

취재/임성희 기자

Q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시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시는게 어려운점입니다. 잘못하면 물론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좋은 여론을 형성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김준배 의장. 그 사랑이 아산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